

News

우리금융, 중간배당 기준일 6월 30일 명시

연합인포맥스

우리금융지주, 중간배당 관련 정관을 '6월 30일 현재 주주에게 이사회의 협의로 중간배당 할 수 있다'고 변경… 중간배당 기준일 명확화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 작년 처음 실시한 중간배당이 정례화될 가능성도 제기 중… 사측은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고 목적이라 설명

대출 감소세에 낮아지는 대출 문턱…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가세

세계일보

케이뱅크, 일부 대출 상품 금리 인하 및 한도 증액… 신용대출 상품 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0.3%p 인하… 이번 조치로 연 3.09~10.32로 최저금리 0.18%p 인하
마이너스통장 금리 0.18%p,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 금리 연 0.10%p 인하… 올해 가계대출 감소로 대출여력 생겼기 때문

금감원, 은행 손실흡수력 키우기 위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주문

서울경제

금감원, 7일 기준 전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요청하는 공문 발송… 향후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 강화 필요하다는 인식 공유 및 추가 적립방안 논의
연초 은행권은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대손충당금 추가로 적립했으나 코로나 및 글로벌 통화 정상화 속도 고려시 추가 적립 규모가 미흡하다는 인식으로 추가 대책 검토

러 루블화 가치 폭락… 은행권, 환전 업무 사실상 중단

조선비즈

미 달러화에 대한 루블화 환율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 7일 오전 기준 106.5루블 기록… 다만 루블화 가치가 워낙 들쑥날쑥해 현재 고시 환율 자체는 큰 의미 없음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 경제 제재 이후 국내 은행권에도 후폭풍… 신한, 하나은행에서는 비대면 루블화 환전 관련 이미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 언제 재개될지 모른다고 안내

"DSR규제 막힌 수요 잡자"…보험사 약관대출 금리 경쟁

e대한경제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빅 3 생명보험사의 이번 달 금리연동형 약관대출 금리 4.26~4.43%… 4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인 4.23~4.57%와 비슷한 수준
기준금리 상승으로 시중은행 금리가 오르며 대출금리 차이가 좁혀진 상황… DSR 규제 적용 받지 않으면서 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러-우크라 전쟁 리스크에 선박·적하보험 '스톱'

서울파이낸스

세계적 재보험사들, 국내 손보사들에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우크라이나 및 인근 지역 관련 적하보험에 대해 부담보 결정 통보
기존에 맺은 증권으로는 담보가 어려워진 상황 반영… 담보 가능성을 열려있으나 적하보험 판매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 종론

위기가 기회…'고쿠폰·저녹인' ELS 봇물

핀포인트뉴스

글로벌 주식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ELS 투자 매력도 상승… 삼성, 한국투자, KB, 키움 등 증권사들 연 7% 이상 고쿠폰 ELS 발행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시장이 크게 조정받은 상황에서 변동성이 커져 과거보다 쿠폰이 높고 리스크 낮은 상품 많아져… 안정성에 무게 둔 상품 확대

오스템임플란트 상각 처리… 미래에셋·NH증권 등 잇따라 펀드 판매 재개

머니S

미래에셋, 한국투자, NH, 삼성, 하나금투 등 증권사들,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펀드 판매 다시 시작… 상각 완료 및 편입 비중 크지 않은 펀드들 관련 수주 전부터 판매 재개
상각률은 운용사별 차이 존재…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은 40%가량 상각 처리… 관련 ETF들도 상각 완료되어 해당 종목 비중 크게 감소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